

2024년 03월 가정통신문

안녕하세요 부평휴 실버케어센터 입니다.

새로운 계절 봄이 시작되는 3월 입니다. 봄에는 지난 겨울 바람에 단단해진 흙을 해치고 새록새록 새 순이 돌아나는 계절 입니다. 저희 부평휴 실버케어센터에서도 봄이라는 이름처럼 어르신 곁에 따뜻하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

낮에는 바깥놀이를 하기 좋을 만큼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

그래도 아침,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니 옷차림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.



3.1절 독도 간식



5층 신체활동- 개구리물기



6층 신체활동- 캐치볼



춘분 맞이- 개구리 꾸미기